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도금혜*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변인(성별, 연령, 공격성,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 변인(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지지)이 청소년의 친구 관계(친구에 대한 애착,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구 지역의 중·고등학교 1, 2학년 1,06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상관분석, 중다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특성 변인 중 성별, 연령, 외현화 공격성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친구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주었고, 성별, 외현화 공격성, 관계상 공격성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정환경 변인 중 아버지와의 애착,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 및 가족의 지지가 친구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주었고, 가족의 지지가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친구 관계는 개인특성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친구 관계, 공격성,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지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에게 학교는 교사나 친구와 같은 다양한 관계를 맺게 하는 사회관계의 장이 된다(전화연, 2006).

특히, 학교에서 형성하게 되는 친구 관계는 청소년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청소년

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부모와의 정서적 공유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반면,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아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고민을 친구와 함께 공유하며 친구에게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홍주영, 도현심, 2002). 청소년에게 친구들은 애정, 동정, 이해의 근원의 장이며, 실험의 장이며,

* 교신저자: 도금혜, E-mail : khdo2004@hanmail.net

부모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을 얻기 위한 후원의 장이 된다(정옥분, 2005).

이처럼 청소년에게 친구 관계는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매일경제, 2006. 7. 23일 기사)해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청소년이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최근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실시되었는데(문혁준, 2000; 박용재, 2003; 이시자, 2000;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 2001; 이주희, 2003; Dekovic & Janssens, 1992; Lease, Kennedy & Axelrod, 2002), 그 결과 청소년의 개인 특성 변인이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먼저, 몇몇 연구에서 친구 관계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시사하고 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 관계에 더 잘 적응하고(이숙희, 2007) 연령이 높을수록 친구 관계가 더 좋다고 밝히고 있다(이진숙, 2002). 그러나 성별과 연령이 가장 기본적인 개인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특성에 성별과 연령을 포함시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격성이 친구 관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공격적이지 않을수록 친구 관계가 좋다고 밝혀지고 있다(도금혜, 최보가, 이지민, 2005; 류정임, 2000; Lease, Kennedy & Axelrod, 2002). 또한 송종란과 조중열(2000)의 연구에서도 친구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능력은 뛰어나고 공격성은 낮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Khatri(1996)의 연구에서도 공격적인 청소년이 친구 관계가 좋지 않

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격적인 청소년이 오히려 관계를 주도하고 사회적 집단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Cairns, Neckerman, Cairns, Gest & Garipey, 1988),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청소년들이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Lease, Kennedy & Axelrod, 2002; Musgrove, Lease & Axelrod, 2002)도 제시되고 있어, 공격성과 친구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이 친구 관계와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최정미, 김미란, 2003), 높은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친구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박용재, 2003; 최진희, 1999), 친구 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Berndt, 1996)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조화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높은 사회적 기술을 반영한 행동을 하게 된다(Hartup & Sancilio, 1986)고 보고하고 있어,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해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거부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도 있어, 적절히 높은 자아존중감은 친구 관계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높은 자아존중감은 오히려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Bishop과 Inderbitzen(1995)은 친구 관계는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친구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친구 관계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찾기 위해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기존의 연구는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주는 한·두 가지 변인

만을 포함시킨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주로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들을 밝혀보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인으로 가정환경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가족과의 관계가 또래 관계의 시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경희(2003)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 행동의 기본이 되며, 어릴 때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는 최초의 대인 관계인 동시에 가장 밀접한 사회관계라고 주장한다.

또한 부모와의 부정적 정서 경험이 후기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지와 행동, 정서적 부적응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Diamond & Doane, 1994),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의 친구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표적으로 연구되어온 분야로서, 자녀의 친구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주영, 도현심, 2002).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할수록 친구와의 관계에서 유능함을 보였으며(Elicker, Englund & Sroufe, 1992; Youngblade, Park & Belsky, 1993),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친구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민영숙, 박원모, 천성문, 이영순, 2007; 홍주영, 도현심, 2002).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과 친구 관계를 살펴본 Elicker 등(1992)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은 친구 관계에서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애착과 친구 관계에 대해 살

펴본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Kerns, 1996; LaFreniere & Sroufe, 1985), 아버지와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홍주영, 도현심, 2002).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애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친구 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주희(2003)는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친구 관계가 좋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도현심과 최미경(1998)도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원만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유능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송순, 2002; 황영미, 문혁준, 2006)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Massey, 1999), 청소년에게 가족의 지지는 적응 행동과 학교생활에서의 친구 관계에 도움을 제공한다(김선자, 조옥귀, 2003)고 밝혀지고 있어, 가족의 지지가 친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가정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몇몇 연구들이 밝히고 있으나,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개인특성 변인을 찾는 데에만 초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의 친구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는 공격성, 자아존중감과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을 포함시켜 개인특성 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의 지지를 가정환경 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

이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개인 특성 변인에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가정환경 변인을 포함시킨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의 변인들을 포함시킨 다차원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은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이나 영향력의 유·무만을 파악하는 단순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까지 파악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각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을 밝히고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인특성 변인(성, 연령, 공격성,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정환경 변인(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지지)이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1, 2학년 1,064명(남학생 559명, 여학생 50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선정된 이유는 청소년기가 친구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친구 관계가 매우 중요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측정도구

1. 친구 관계

친구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박민정(2003)의 친구 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친구에 대한 애착(10문항)과 비행친구와의 접촉(9문항)으로 나누어진다. 친구에 대한 애착은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묻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행 친구와의 접촉은 현재 나의 친구들이 비행 행동을 어느 정도 저지르는지를 평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친구에 대한 애착이 .78,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86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2. 개인특성 변인

1)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Crick과 Grotpeter(1996)의 공격성 척도를 본 연구자가 변안·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박사 3인 이상의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총 12문항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상 공격성으로 나누어지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외현화 공격성이 .81, 관계상 공격성이 .76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희화(1998)와 최미경(2000)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6문항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학업능력 자아존중감(5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6문항), 신체적 자아존중감(5문항)으로 나누어지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학업능력 자아존중감이 .75,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81, 신체적 자아존중감이 .85였다.

3. 가정환경 변인

1)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이수하(2005)의 부모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을 분리하여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애착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88이고 아버지와의 애착이 .90이었다.

2)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영미(1991)가 변안한 부모 양육태도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7문항),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6문항)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7문항),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6문항)로 나누어지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88,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67이었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88, 어머니의 통제

적 양육태도가 .67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통제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가족의 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8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지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이었다.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척도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공차한계와 VIF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독립 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는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M	SD	변 인	M	SD
친구에 대한 애착	3.44	.58	어머니와의 애착	2.92	.43
비행친구와의 접촉	1.65	.62	아버지와의 애착	2.82	.46
외현화 공격성	2.01	.54	애정적 양육태도(부)	2.71	.69
관계상 공격성	1.54	.48	통제적 양육태도(부)	2.28	.57
학업능력 자아존중감	2.46	.58	애정적 양육태도(모)	2.95	.64
사회적 자아존중감	2.95	.50	통제적 양육태도(모)	2.24	.55
신체적 자아존중감	2.29	.63	가족의 지지	3.82	.87

표 2.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친구에 대한 애착	1															
2. 비행친구와의 접촉	-.08*	1														
3. 성별	.22*	-.34*	1													
4. 연령	.13*	-.06	.08*	1												
5. 외현화공격성	.09*	.43*	-.23*	-.08*	1											
6. 관계상공격성	.04	.29*	.06	-.03	.50*	1										
7. 학업능력 자아존중감	.01	-.09*	.08*	-.01	-.11*	-.04	1									
8. 사회적 자아존중감	.29*	-.06*	.05	-.04	.03	-.06	.26*	1								
9. 신체적 자아존중감	.03	.01	-.03	.07*	-.04	.02	.35*	.33*	1							
10. 어머니와의 애착	-.04	-.24*	.07*	-.04	-.19*	-.19*	.24*	.22*	.17*	1						
11. 아버지와의 애착	-.05	-.22*	.01*	-.06*	-.17*	-.18*	.19*	.23*	.18*	.80*	1					
12. 애정적 양육태도(부)	.05	-.18*	.10*	-.06*	-.09*	-.04	.21*	.30*	.14*	.54*	.71*	1				
13. 통제적 양육태도(부)	-.01	.18*	-.19*	-.04	.15*	.10*	-.04	-.01	-.04	-.18*	-.27*	-.12*	1			
14. 애정적 양육태도(모)	.05	-.19*	.13*	-.07*	-.12*	-.10*	.25*	.28*	.19*	.69*	.53*	.69*	-.05	1		
15. 통제적 양육태도(모)	.03	.17*	-.21*	-.07*	.16*	.11*	-.03	.01	-.00	-.25*	-.16*	-.02	.81*	-.11*	1	
16. 가족의 지지	.02	-.23*	.05*	.01	-.15*	-.20*	.23*	.25*	.19*	.73*	.73*	.61*	-.16*	.63*	-.14*	1

*p<.05

1. 개인특성 변인이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개인특성 변인이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친구에 대한 애착은 성별($\beta = .24$), 연령($\beta = .14$), 외현화 공격성($\beta = .15$)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beta = .31$)이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에 대한 애착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외현화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특성 변인들이 친구에 대한 애착을 설명하는 정도는 17%였다.

한편,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성별($\beta = -.28$), 외현화 공격성($\beta = .28$), 관계상 공격성($\beta = .16$)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beta = -.06$)이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친구

와 더 많이 접촉하고,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상 공격성이 높을수록 비행친구와 더 많이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와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특성 변인들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설명하는 정도는 27%였다.

2. 가정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친구에 대한 애착은 아버지와의 애착($\beta = .16$),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beta = -.12$) 및 가족의 지지($\beta = .10$)가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은 더 높았으며,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적을수록 친구

표 3.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의 중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청소년의 친구 관계								
	친구에 대한 애착				비행친구와의 접촉				
	B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성별	.27	.04	.24*	.00	-.34	.04	-.28*	.00	
연령	.05	.01	.14*	.00	-.01	.01	-.01	.66	
공격성	외현화 공격성	.16	.04	.15*	.00	.32	.04	.28*	.00
	관계상 공격성	-.04	.04	-.03	.31	.21	.04	.16*	.00
자아존중감	학업능력 자아존중감	-.05	.03	-.05	.09	-.03	.03	-.03	.30
	사회적 자아존중감	.35	.04	.31*	.00	-.07	.04	-.06*	.04
	신체적 자아존중감	-.05	.03	-.05	.09	.04	.03	.04	.19
F	30.58*				55.38*				
R ²	.17				.27				

* $p < .05$

기준변수 - 성별 : 남

표 4.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의 중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청소년의 친구 관계								
	친구에 대한 애착				비행친구와의 접촉				
	B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부모와의 애착	어머니와의 애착	-.11	.10	-.08	.28	-.17	.10	-.12	.08
	아버지와의 애착	-.20	.10	-.16*	.03	.04	.10	.03	.68
부모의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부)	.07	.05	.08	.19	-.03	.05	-.04	.51
	통제적 양육태도 (부)	-.12	.06	-.12*	.04	.09	.06	.08	.16
	애정적 양육태도 (모)	.07	.05	.08	.16	-.01	.05	-.02	.79
	통제적 양육태도 (모)	.11	.06	.11	.07	.07	.06	.06	.28
가족의 지지		.07	.03	.10*	.04	-.08	.04	-.11*	.03
<i>F</i>		3.62*				12.63*			
<i>R</i> ²		.02				.08			

* $p < .05$

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족의 지지가 많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들이 친구에 대한 애착을 설명하는 정도는 2%였다.

한편,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가족의 지지($\beta = -.11$)만이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지지가 적을수록 비행친구와 더 많이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들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설명하는 정도는 8%였다.

3.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1) 청소년의 친구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친구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의했던 변인들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특성 변인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성별($\beta = .23$), 연령($\beta = .13$), 외현화 공격성($\beta = .15$)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beta = .28$)이 청소년의 친구에 대한 애착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6%였다.

2단계에서는 개인특성 변인과 함께 가정환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성별($\beta = .22$), 연령($\beta = .13$), 외현화 공격성($\beta = .13$)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beta = .30$)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남아 있고, 아버지와의 애착($\beta = -.10$)이 청소년의 친구에 대한 애착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 증가하여 전체 변량의 17%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친구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개인특성 변인이 가정환경 변인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청소년의 친구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청소년의 친구에 대한 애착							
	1단계 (개인특성 변인)				2단계 (가정환경 변인)			
	B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성별	.26	.03	.23*	.00	.26	.04	.22*	.00
연령	.05	.01	.13*	.00	.05	.01	.13*	.00
외현화 공격성	.16	.03	.15*	.00	.14	.03	.13*	.00
사회적 자아존중감	.32	.03	.28*	.00	.34	.03	.30*	.00
아버지와의 애착					-.13	.06	-.10*	.02
통제적 양육태도(부)					.00	.03	.00	.97
가족의 지지					.02	.03	.03	.52
<i>F</i>	50.14*				30.03*			
<i>R</i> ²	.16				.17			

* $p < .05$

표 6.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접촉							
	1단계 (개인특성 변인)				2단계 (가정환경 변인)			
	B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성별	-.35	.04	-.28*	.00	-.34	.03	-.28*	.00
외현화 공격성	.33	.04	.29*	.00	.32	.04	.28*	.00
관계상 공격성	.21	.04	.16*	.00	.18	.04	.14*	.00
사회적 자아존중감	-.06	.03	-.05	.07	-.02	.03	-.01	.63
가족의 지지					-.10	.02	-.15*	.00
<i>F</i>	97.38*				85.48*			
<i>R</i> ²	.27				.29			

* $p < .05$

2)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의했던 변인들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특성 변인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성별($\beta = -.28$), 외현화 공격성($\beta = .29$) 및 관계상 공격성($\beta = .16$)이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27%였다.

2단계에서는 개인특성 변인과 함께 가정환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성별($\beta = -.28$), 외현화 공격성($\beta = .28$) 및 관계상 공격성($\beta = .14$)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남아 있고, 가족의 지지($\beta = -.15$)가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 증가하여 전체 변량의 29%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개인특성 변인이 가정환경 변인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을 살펴본 연구이다.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을,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애착 및 가족의 지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친구 관계 중 친구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들은 성별, 연령, 외현화 공격성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의 또래 애착 점수가 남학생의 또래 애착 점수보다 높다는 이정수(2006)의 연구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또래 애착을 형성한다는 황숙영(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 관계에 더 잘 적응한다는 이숙희(2007)의 연구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 간에 상호친밀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윤미경(1999)의 연구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의 우정이 정서적으로 더 친밀하고 남학생들보다 더 작은 규모의 배타적인 우정망을 형성한다는 점(Hartup & Overhauser, 1991)에 근거하여, 여학생들은 몇몇의 단짝 친구들

과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친구 관계가 더 좋다는 이진숙(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조망수용능력이 낮아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신연선, 2003)에 근거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친구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이는 결국 친구와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현화 공격성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공격적인 청소년이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보다는 오히려 유능한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고 밝힌 유안진 등(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중간 정도의 인기는 얻고 있다고 보고한 Olweus(1984)의 연구와 또래를 괴롭히는 공격적인 여학생들이 또래들 사이에서 놀라울 정도로 선호되고 있다는 Lindman과 Sinclair(1988)의 연구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공격적인 청소년이 또래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Khatri(1996)의 연구 결과와 공격성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는 신재은(200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적절한 수준의 공격성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심각한 수준의 공격성은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 애착이 높다는 이정수(2006)의 연구

와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는 강효숙(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임진영과 장재숙(2003)의 연구와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지각할수록 유능한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는 오원정과 이은혜(2000)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상호작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친구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친구 관계 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들은 성별, 외현화 공격성, 관계상 공격성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친구와 더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친구와 더 자주 어울린다는 황숙영(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더 빈번히 발생한다는 허혜경과 김혜수(2004)의 주장도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적절한 비행 행동이 남성적인 특성을 드러낸 것이라 간주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좀 더 자주 비행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상 공격성이 높을수록 비행친구와 더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공격성이 비행과 강한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권지은(1998), 최희경(2006)의 연구와 공격성이 높을수록 비행친구와 많이 접촉하고 비행친구가 많다는 조학래(200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공격성과 비행은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Raskin, Novaeok 및 Hong(1991)의 연구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인 청소년이 또래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Khatri, 1996)는 점에 근거

하여, 또래 집단에 수용되지 못한 몇몇 공격적인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와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민수홍(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친구와의 관계에서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는 장재숙과 백경임(2002)의 연구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노력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여 비행행동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조학래(2004)의 보고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질수록 사회적 접촉을 꺼린다는 점(채혜연, 2000)에 근거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회피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일반적인 친구보다는 비행친구와 같은 음성적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친구 관계 중 친구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들은 아버지와의 애착,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 및 가족의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만이 친구 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의 애착보다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친구 관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애착이 모애착보다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박원모와 천성문(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아버지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아버지가 강압적이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친구들과로부터 얻으려 한다는 점(배숙진, 1998)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에 대한 보상으

로 친구와 더 높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가 좋을수록 또래와의 애착도 높다고 밝힌 연구(전효정, 이귀옥, 2002; 홍주영, 도현심, 2002), 아버지와 애착 관계가 높을수록 또래 관계에서 유능하다는 이경숙, 서수정과 신의진(2000)의 연구와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 관계가 친밀한 우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Youngblade와 Belsky(1992)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청소년기의 또래 애착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는 부족하므로(전효정, 이귀옥, 2002), 좀 더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적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지 못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기술이 낮아 부정적인 친구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황보영란, 박경란과 전영자(1998)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하지 않은데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친구 관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청소년의 발달에 더 영향력이 있다고 밝힌 Dekovic과 Meeus(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애정이 클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송중란, 조중열, 2000)에서, 아버지가 애정적이지 않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만을 보일 때 자녀의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의 지지가 많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유능한 또래 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Massey, 1999)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가족이 화목할수록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는 김소희와 오윤자

(2006)의 연구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지지와 가족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적응 행동에 도움을 준다는 점(김선자, 조옥귀, 2003)에 근거하여, 가족의 지지가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친구 관계 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은 가족의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지지가 적을수록 비행친구와 더 많이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구성원간의 화합이나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가정 분위기가 비행 행동에 덜 참여하도록 한다는 성용은(2005)의 연구와 가족의 화목과 형제 관계와 같은 가족 환경이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황효주(2007)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가정의 화목도가 청소년의 비행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김준호, 박정선과 전개서(1995)의 연구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비행이 '물리적인 결손가정'보다는 '심리적인 결손가정'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는 점(허혜경, 김혜수, 2004)에 근거하여,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보다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기능적인 특성이 청소년 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친구 관계 중 친구에 대한 애착은 개인특성 변인이 가정환경 변인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변인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 사회적 자아존중감, 성별, 외현화 공격성 및 연령순으로 영향을 주었고,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을 함께 투입한 2단계에서는 사회적 자아존중감, 성별, 외현화 공격성, 연령 및 아버지와의 애착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개인특성 변인에 가정환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전체 설명력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은 가정환경 변인이 친구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의 친구 관계 중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개인특성 변인이 가정환경 변인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변인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 외현화 공격성, 성별 및 관계상 공격성 순으로 영향을 주었고,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을 함께 투입한 2단계에서는 외현화 공격성, 성별, 가족의 지지 및 관계상 공격성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개인특성 변인만을 투입했을 때 높은 설명력을 보였지만 가정환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에는 전체 설명력이 미비하게만 증가하였다. 이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있어서 개인특성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크지만 가정환경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되는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친구 관계 연구의 폭을 확장시켰으며, 단편적이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폭넓은 이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영향력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의 친구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어떠한 요인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지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친구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개선 방법에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한편, 본 연구는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전국의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청소년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시켜 가정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효숙(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1998).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자, 조옥귀(200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및 행동 문제와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1), 361-385.
- 김소희, 오윤자(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5(4), 313-327.
- 김준호, 박정선, 전계서(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금혜, 최보가, 이지민(2005). 청소년의 사회측정적 인기도 및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2), 57-67.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류경희(2003). 청소년의 성, 학교, 계열별로 살펴본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가정과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생활과학연구*, 7, 1-39.
- 류정임(2000). 감정조망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 유아의 인기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9(2), 173-185.
- 매일경제(2006). “청소년 10명 중 4명 왕따 경험”. 2006. 7. 23일 기사.
- 문혁준(2000). 또래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 38(7), 39-51.
- 민수홍(1996). “개인의 자아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영숙, 박원모, 천성문, 이영순(2007).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공격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정서·행동장애 연구*, 23(2), 115-140.
- 박민정(200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재(2003). 또래집단에서 인기도 차이연구 - 자아개념과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모, 천성문(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학교*, 5(1), 41-59.
- 배수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용은(2005). 가정요인과 비행에 관한 연구. *대학원연구논집-동국대학교 대학원*, 35, 627-653.
- 송 순(2002). 아동의 또래지위지각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47-159.
- 송종란, 조증열(2000).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도덕추론, 교실행동 및 인기도와의 관계. *인문논의*, 13(1), 67-82.
- 신연선(2003). 아동의 조망수용능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재은(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53-165.
- 오원정, 이은혜(2000). 아동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지각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14, 36-48.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윤미경(1999).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이수하(2005).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시자(2000). 아동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또래 선호와 우정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5-19.
- 이영미(1991).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 불일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이정수(2006).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희(2003).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또래수용, 문제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2).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진영, 장재숙(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주는 영향 : 종단적 분석. *초등교육연구*, 16(1), 379-399.

- 장재숙, 백경임(2002). 어머니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11.
- 전화연(2006). 청소년의 가정환경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효정, 이귀옥(2002).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191-210.
- 정옥분(2005).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조학래(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행정논집*, 31, 171-198.
- 채혜연(2000).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자기개념 및 또래지위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 단기 종단적 연구와 심층면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미, 김미란(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최진희(1999). 또래 거명에 의한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경(2006). 아동학대, 공격성 및 아동기 비행간의 관계 : 모녀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혜경, 김혜수(2004). 청년발달심리학. 학지사.
- 홍주영, 도현심(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황보영란, 박경란, 전영자(1998). 아동의 인성 및 가정환경변인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6, 193-215.
- 황숙영(2007).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영미, 문혁준(2006).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대한가정학회지*, 44(2), 83-91.
- 황효주(2007). 청소년비행의 영향요인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rndt, T. J.(1996). Exploring the effect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346-36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shop, J. A., & Inderbitzen, H. M. (1995).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4), 476-489.
- Cairns, R. B., Neckerman, Cairns, B. D., Gest, S. D., & Garipey, J. (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15-823.
-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Dekovic, M. & Janssens, J.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Dekovic, M. & Meeus, W.(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 effects of parenting and

-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 163-176.
- Diamond, D., & Doane, J. A.(1994). Disturbed attachment and negative style. An inter generational spiral.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3(6).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artup, W. W., & Overhauser, S.(1991). Friendships. In R. M. Lerner, A. C. Petersen, & J. Brooks-Gunn(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Vol. 1). New York : Garland.
- Hartup, W. W., & Sancilio, M. F.(1986). Children's friendships. In E. Schopler & G. B. Mesibov(Eds), *Social behavior in autism*(pp. 61-80). New York: Plenum press.
- Kerns, K. A.(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friendship quality: Links to child-mother attach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harti, P. (1996). *Aggression, Peer victimization, and Social relationships among rural indian yout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LaFreniere, P. J., & Sroufe, L. A.(1985). Profile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56-69.
- Lease A. M., Kennedy, C. A., & Axelrod, J. L. (2002). Children's Social Constructions of Popularity. *Social Development*, 11(1), 87-109.
- Lindman, R., & Sinclair, S.(1988). *Social roles and aspirations of bullies and victims*. Paper presented at the 8th world biennial ISRA conference, Swansea, Wales, July 2-6.
- Massey, C., J. (1999). Family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Self-Concept.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 1-12.
- Musgrove, K. T., Lease, A. M., & Axelrod J. L.(2002). Dimensions of Social Status Preadolescent Peer Groups : Likability, Perceived Popularity, and Social Dominance. *Social Development*, 11(4), 508-533.
- Olweus, D.(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Jhon Wiley & Sons Ltd, 57-76.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Raskin, R., Novaoek, J., & Hong, R.(1991). Narcissism, self-esteem management,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911-918.
- Youngblade, L. M., & Belsky, J.(1992). Parent-child antecedents of 5-year old close

friendships : A longitudinal analysis. *Dev Psychol* 28 : 700-713.

Youngblade, L. M., Park, K. A., & Belsky, J. (1993). Measurement of young children's close friendship: A comparison of two independence assessment syste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attachment secu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6, 563-607.

1차 원고 접수: 2008. 7. 15

수정 원고 접수: 2008. 8. 11

최종 게재 결정: 2008. 8. 12

A study of individual and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friends relationship

Kum-Hae D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on adolescent's friends relationship. Independent variables were Individual and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The subjects were 1,064 - 1st and 2nd graders of several middle and high schools in Daegu. The major finding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friends relationship was affected by sex, age,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social self-esteem of individual variables. Second, adolescent's friends relationship was affected by father's attachment, father's control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of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Third, Individual variables have great effect on adolescent's friends relationship than any other variables.

Key Words : friends relationship, aggression, self-esteem, parent's attachment, parenting style, family support